

## 제목 : 전쟁 (이글은 거짓임)

-최서빈-

2023년 09월 14일 오전 11:30분 북한이 중대발표를 하였다. 리춘희가 “남조선 괴뢰군을 조선 반도에서 함락시킬 것이며 휴전협정을 전면 무효화하며 남조선 괴뢰군들을 조선반도에서 털하나라도 냉기 지 않고 증발시킬 것이다.”라고 뉴스에 나왔다. 전국에는 공습경고와 경계경보가 울렸다. 서 울에서는 다수의 미사일 발사체가 발견되었으며 전국은 비상 사태에 걸렸다. 북한은 미사일 들을 서울, 인천, 세종,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에 먼저 미사일을 발사시켰다. 전국 학 교는 하교 직장은 당장 퇴근을 시켰다. 북한은 빠른 속도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빠 른 속도로 김포, 파주, 연천, 양주, 철원, 화천, 인제, 고성, 인제, 속초를 빠른 속도로 함락 을 시켰다. 전쟁이 시작된지 1일이 지났다. 북한은 현재 남하하지못하는 상태이고 연합군도 도착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남하를 시도하고 있다. 남하에 성공한다면 경기도, 강원도가 침략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3주가 지나고 북한군이 남하를 성공하여 경기, 강원은 침략이 되었다. 제주도 할머니들은 소리에 아이구 폭탄이 터져게 빛나여 거덕인지도 몰르구 여기에 would like hater top one For the chuck wonder like station 동네사람들이라고 제주도에 있는 김정자(진짜이름임)라고 그할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북한군은 경기, 강원지역에서 민간인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다. 국군과 연합군은 2주 뒤에 북상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국군과 연합군은 북한이 남하를 할수 없도록 철저하게 방 어를 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국군과 연합군은 빠른속도로 개성을 점령하고 평양을 향해 북상을했다. 북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서울을 향해 핵폭탄을 발사했다. 평양에서 발사한 핵폭탄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서울이 아닌 고성군 인근 310km 떨어진 곳에 낙 하했다. 북한은 실패하자 서울에 다시 한번더 발사했지만 서울에서 126.56km 떨어진 곳인 세포라는 북한도시에 낙하해서 한국에서 큰피해를 입지안았지만 북한군이 국군과 연합군이 방심한틈을 타서 빠른 속도로 남하를 했다. 북한군은 전라남도과 제주도를 제외한곳에 침략 을 했다. 국군과 연합군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군을 진압할 수 없었고 당하는 모 습을 지켜만 보아야 했다. 결국 연합군과 국군은 전라남도과 광주에서 북한군이 방심한 틈 을 찔 수 밖에 없었다. 1달이 지나고 11월이 되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시민들은 긴장을 멈출 수 없었다. 1달이 지나도 방심하지않고 눈치를 보고 있자 속초 상륙작전으로 한국땅을 찾고 북상을할 계획을 짜고 실행으로 옮기자는 사람이 많아서 실행으로 옮겼다. 속초 상륙작전에 한군대에 중대장 김국수 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사람은 당장 모든 군인들 을 태우고 속초로 이동했다. 속초땅에 오자 민간인들의 시체가 있었다. 김국수라는 사람은 속초에있는 민간인들의 시체를 검사를 했다. 연합군들도 속초로 오고 있었다. 속초를 빠른 속도로 침략해서 3주동안 싸우고 한국땅을 찾았다. 이제 북상만 성공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 이다. 국군과 연합군은 1주일 뒤에 하자고 말을 했다. 하지만 김국수라는 사람은 북한이 지 금 방심하고 있으니 지금하면 금방 전쟁이 끝날것이라고 말했다. 연합군과 다른 국군들은 이의견에 반대 했지만 김국수라는 이름을 걸고 실행을 했다. 그것은 정말성공했다. 그렇게 북한까지 점령을 해서 5달이라는 긴시간동안의 전쟁이 끝났다.